



## 工業技術教育의 專門化

前會長 徐 廷

〈漢陽大學校 機械工學科〉

學會에서의 原稿執筆依賴를 받고도 게으름으로 此日彼日 日字를 보내고 會誌出刊에 直面하여 붓을 들으니 머리속에 떠오르는 課題는 어찌 할 수 없이 從事하는 教壇을 통한 教育問題로 集約되게 된다.

30年의 教壇生活을 하면서도 現在 이 瞬間까지도 「教育」이란 어떠한 것이며, 「技術」이란 무엇인지도 正確한 定義조차 터득치 못한 本人이 工業技術教育의 專門化 云云하는 것은 判斷이 그릇될 수 있고 따라서 주제넘은 일이라 생각되나, 科學과 技術은 發達過程에 있어서 닭과 달같이 어느것이 먼저인가 하는 問題와 같았고, 長歲月間에 相互 앞서거나 뒤서거나하여 現在에 이르렀으며, 이제와서는 서로의 發展에 各各 支柱役割을 하게되어 兩者는 混然一體가 되었다.

예를 들면 科學에서 가장 尊貴하게 생각하고 있는 創造性을 技術에서도 重히 다루고 있고 技法(know how)에만 마무리되는 技術을 漸次로 體系化하여 「學」即「工學」으로까지 成長시킨다.

機械를 設計하는 技術을 「機械設計法」이라 부르고 있으나 科學은 이를 體系化하여 「機械設計學」이라 稱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技術은 科學으로부터 遊離하여 存在할 수 없게되어 近者에는 그대로 技術이란 말보다 「科學技術」이라 부르는 것이 正確한 뜻을 表示하게 되었다.

「科學技術」이란 말은 「科學·技術」과 混用하기 쉬우나 後者는 「科學과 技術」을 뜻하며, 科學과 技術을 一體로 한 科學技術과는 全然 다르다.

이와같은 科學技術은 體系화된 工學을 가지고 그 專攻方向으로하여 工業專門大學, 四年制工科大學 및 大學院에서 履修, 研究토록 制度의으로 施行되고 있는것이 實態임은 周知의 事實이며, 現今의 이 制度에서 工業專門大學 出身의 就業問題가 널리 舉論되고 있는 마당에 科學技術教育即 工學教育을 主 目標로하는 四年制大學에서의 教科內容을 縮小한 듯한(반드시 모든 專門大學에서 그렇치 않으나) 教科種類 및 內容에서 脫皮하여, 예를 들면 機械技術教育에서는 專門分野를 細分化하여 熱機關專攻, 工作機械專攻, 流體機械專攻 등으로 初年度부터 直時 原理, 技法을 教育하면서 最小限의 必要不可缺한 科學(數學·物理學等)을 並行教育하므로써 單時日內에 技法을 익히고 또한 科學과 技術이 混然한 一體라는 基本概念도 터득할 수 있으면서 產業戰線의 中間 技術指導者를 養成함에도 効率的이라 생각한다. 이 方法은 혹이나 日帝末期의 高工, 工業專門學校教育의 舊態依然한 方式이라 評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에 現在의 實情과 將來를 내다볼 때 彌縫策이 아닌 國力伸張이란 큰 觀點에서 도 効率的인 方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